

보도	2023.5.30.(화) 15:00	배포	2023.5.30.(화)		
담당부서	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자산연구팀	책임자	국장	김부곤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장	안병남	(02-3145-7130)

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,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시행 대비 업계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'23.5.30.(화)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학계 및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
-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노력을 당부하였음

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3. 5. 30.(화) 15:00 ~ 16:30
- ☑ 장 소 :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 B1 메인홀
- ☑ 참석자 : (금감원) 수석부원장, 디지털금융혁신국장, 기업공시국장
(학계 및 업계) 11명

학계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

구 분	성 함	직 책	소 속
학계 등 (3)	천창민	교수	서울과기대
	박선영	"	동국대
	이정엽	변호사	LKB엔파트너스
업 계 (8)	이석우	대표이사	업비트
	차명훈	"	코인원
	오세진	"	코빗
	이중훈	부대표	고팍스
	최준용	대표이사	후오비코리아
	박원준	"	캐서레스트
	유승재	"	한빛코
	김재진	부회장	DAXA

II 수석부원장 발언 주요내용

-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테라-루나 사태,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,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
 - 이번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며,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,
 -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하여 이상거래 모니터링,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 역시 당부한 사실을 강조하며, 업계의 적극적 협조도 요청함
- 무엇보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·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
 -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,
 - 이를 위해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^②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임을 밝힘
- 또한,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 및 이용자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함
 -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·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
 -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·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

III 주요 논의사항

□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

주 제	발제자
①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및 향후 계획	김재진 부회장(DAXA)
②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방안	김부곤 국장(금감원)

- ① 김재진 DAXA 부회장은 DAXA는 자율협의체로서 공적규제와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 및 2023년 계획을 발표
 - 거래지원 분과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추진하였고, 향후에는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
 -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,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
 - 시장감시 분과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논의 중
 - 준법감시 분과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, 광고 경고문구 삽입 등을 진행하였고, 사업자 윤리행동강령,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추진할 예정
 - 교육 분과는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 영상을 제작·배포하였고, 투자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진행 중
- ②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장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

- 금융위가 추진하는 ④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,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·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함께 검토하고,
 - 필요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⑤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」(가칭)를 운영할 예정
 - 추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⑥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, 금감원은 「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」 등을 통해 동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 등 지원
- 한편, 이번 간담회에는 원화마켓거래소 外 코인마켓거래소도 참석하여 자율개선 및 감독계획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함

IV 향후 계획

- 오늘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**활발한 의견교환**이 이루어졌으며 금융감독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
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
- 또한, 국회 정무위가 요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개선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음

(별첨 1)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발언자료 1부.